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말씀을 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말씀을 진지하게 전해 주고 감동을 주어 깨닫게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마치 양떼를 푸른 초장에 끌고 가듯 말씀을 전하며 이끌고 가는 방법이다.
2. 성령님은 먼저 개인의 것을 보여 주시며 깨닫고 실천하게 하시고, 그다음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큰 것을 보여 주시며 전체의 것도 알고 행하게 하신다.
3. 성령님은 자기 차원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느 때는 성령님께 묻고 행했어도 제대로 안 될 때가 있다. 그때는 자기 차원을 높이고 성령께 다시 물어 봐야 된다.
4. 자기 인식과 주관이 있으면, 성령의 감동대로 제대로 못 하게 된다. 자기 주관이 그릇되면, 사탄이 개입한다.
5. 첫 번째는 자기 목적, 두 번째는 성령의 목적이다. 성령님은 목적을 이루게 하실 때 먼저는 ‘육이 있는 자인 자기의 목적’을 향해 가게 하신다. 그리고 그다음 ‘신령한 성령의 목적’을 이루도록 감동시켜 행하게 하신다.
6. 하나님의 역사도 먼저는 ‘보다 육적인 주관권의 구약역사’였다. 그다음 신령하신 예수님을 통해 ‘신령한 영적 역사’를 2000년 동안 펴 오셨다.